

“정남진 장흥 키조개 맛보러 오세요”

5월 4~7일 '제20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 개최 키조개 까기·갯벌 생태체험 등 다양한 체험 마련



장흥군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안양면 수문항 일원에서 '제20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는 장흥정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에서 건져 올린 키조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축제 현장에서는 장흥삼합, 키조개 구이, 탕수육, 회무침, 죽 등 다양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갯벌 생태체험, 바지락 캐기, 키조개 까기·셀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키조개 가요제도 함께 진행된다. 키조개 가요제는 가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 6일 예선을 거쳐 7일 결선을 치른 뒤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김유성 작곡가의 노래가 증정된다.

장흥 키조개는 국제양식관리협회에서 친환경양식 수산물 ASC인증 받은 '무산김'을 생산하는 장흥정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에서 자라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저칼로리 음식으로 알려진 키조개는 몸이 이롭게하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연, 칼슘, 철 등 미네랄 성분이 다른 어패류보다 높아 예로부터 강정식품으로 알려진다.

장흥 키조개는 일반 키조개보다 패주의 크기가 크고 알이 굵다.

영양분이 풍부한 개펄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래가 많은 서해안에서 자란 키조개에 비해 부드럽고 향긋하며 살이 연하다.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 주변으로는 아름다운 득량만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수문랜드 블루투어 오토캠핑장, 현대문학 대표 작가인 한승원선생의 집필실인 해산토굴과 한승원 문학산책로, 제암산 철쭉제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축제가 열리는 안양면 앞바다는 최고 품질의 키조개가 생산된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키조개 축제에 오셔서 키조개 요리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흥=김도영 기자



치유 정원, 슬로시티 청산도로 오라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슬로걷기 축제 개최

완도군은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청산도 일원에서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는 주제로 2023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느리게 걸으며 쉼과 여유를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버리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청산도 플로깅'과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스탬프 투어 '청산 완보', 청산도 주민들과 걸으며 구석구석 이야기를 듣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란다' 등이 운영된다.

또한 별 헤는 밤 청산도 야간 버스 투어, 청산도 달팽이를 찾아라, 청산 서화,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청산도 의자 정원, 청산도의 사진, 옛 사진 전시관,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되었다.

이 밖에도 완도군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청산도 웨데이 클래스는 청산도 여행 스케치, 황칠 원예 체험, 청산도 마그넷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청산 해양치유 공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내내 노르딕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등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관광과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주민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청산도에 와 보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산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돌담장, 해녀 등 그림의 풍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며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하여 이름 붙여진 슬로길은 전체 11코스, 42.195km에 이르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선정, 2011년 국제 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 의신면 구자도, 섬 뱃길 새롭게 연다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구자도는 27가구 50여명이 거주하면서 김 등 해조류 양식을 하고 있지만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민 수가 적어 민간 여객선사의 운항이 어려웠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개인 선박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하는 불편이 많았지만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오는 5월부터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지원, 해상교통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군은 본격적인 운항을 앞두고 시험운항 실시, 접안시설 안전 점검 등 항로 운영 준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참두릅 연구회와 현장 간담회 실시

고부가가치 참두릅, 대표 임산물 육성

강진군은 지난 3일, 참두릅 생산자단체인 강진군 참두릅연구회(회장 이성우)와 강진군산림조합(조합장 윤길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두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는 고소득 임산물로 각광 받고 있는 강진 참두릅의 품질개선을 위한 모색하기 위해 사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두릅 수확 체험, 고품질 두릅생산을 위한 토론회, 두릅을 활용한 음식 시식회 등으로 이어졌다.

강진 참두릅은 노지에서 생산되는 참두릅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확됨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며, 3월 28일 현재, 1kg 당 최고 3만 7천 원에 거래되는 등, 임산물 소득증대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산림소득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48%



확대 편성해, 참두릅과 은나무 묘목 식재 및 퇴비 구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참두릅, 은나무, 산림버섯을 강진군 대표임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강진을 대표하는 임산물로 고품질 두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군민의 날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오는 29일 해남군민광장에서 진행...참가자는 21일까지 예심 접수

해남군은 제50회 해남군민의 날을 기념해 4월 29일 군 신청사 앞 해남군민광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

KBS 간판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해남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으로, 해남군은 올해 5월 1일 군민의 날을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하와 화합행사로 마련하고 있다.

KBS전국노래자랑 해남편은 전국 노래자랑의 새로운 MC 김신영과 김혜연, 김국환, 현당, 김다나, 김재룡(개그맨 김재욱) 등이 출연해 군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의 주인공인 일반 출연자 예심 접수가 시작됐다.

예심접수는 기성가수를 제외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4월 21일(금) 까지 각 읍·면사무소, 군청안내실을 직접 방문신청 또는 해남군 홈페이지 군청알리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s1025@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예심은 4월 27일 오후 1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1·2차 예심을 통해 15팀 내외로 본선 진출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이후 4년만에 해남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이 코로나19로 피로감을 느끼는 군민에게 다시 활력을 제공하고, 군민 소통과 화합의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